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영향 요인

조정애¹, 김정선*
¹춘해보건대학교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ung-Ae Cho¹, Jeong-Seon kim*

¹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학과만족도 향상을 위한 재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적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U 시 소재 4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35명으로,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학과만족 정도를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25까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학생의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전체적 영향요인은 25.3%였으며, 가장 높은 관련요인은 간호전문직관으로 19.9%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을 추가하였을 때 24.4%, 교우관계를 추가 하였을 때 25.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and a school adaptation program both of which aim to improve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The participants were 235 nursing students at four different colleges located in B·U Cit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ose students to determine their ego-resiliency, view of the nursing profess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departm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6th to November 25th, 2015.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t-test and ANOVA in accordance with SPSS 18.0. A post-test was then conducted through 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s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ll factors affecting nursing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had an explanatory power of 25.3%. Of those factors, the view of the nursing profession was highest in the explanatory power, or 19.9%. That power increased to 24.4% when ego-resiliency was added as another factor. This also increased to 25.3% when peer relations were add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educational strategy to improve the nursing profession for the nursing department.

Keywords : Department Satisfaction, ego-resiliency, Nursing Profession,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환자관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며[1-2], 이러한 역할을 대비하기 위해 신입

생 때부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필요한 역할과 전문능력을 함양해야 한다[3-4]. 대학생활은 진로결정의 중요한 시기로,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부분은 입학 후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며 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5]. 하지만 상

*Corresponding Author : Jeong-Seon Kim(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Tel: +82-10-7411-3260 email: ring700@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5, 2016

Revised (1st March 3, 2016, 2nd March 15, 2016, 3rd March 22,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당수의 학생들이 개인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한 결과 자신의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6].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도 자신들의 진로고민이나 결정과 상관없이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거나 미래 취업정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7]. 선행연구[8]에서도 간호대학생의 학과 선택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 33.8%,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24%,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가 20.7%로 높게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취업전망을 고려한 학과 선택이 일반적이며, 다른 학과 보다 취업이 쉬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비중은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공과 자신의 특성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거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할 수 있으며[9], 또한 이는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대학 졸업 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2].

Ko 등[10]은 미래와 전공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입시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 학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반대로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다면 학과만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8].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학습동기와 자아탄력성[5],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8], 간호전문직관[10-11], 사회성,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12] 등이 학과만족도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학생들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업부담이 과중하고,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대상자나 보호자와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실습을 수행해야 하며, 엄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노출되어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이 보다 어려울 수 있다[13]. 이러한 간호대학생들의 학과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핵심역량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과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간호교육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자아탄력성(Self-Resilience)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 특히 좌절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여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며[14], 생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에 직·간접효과를

갖는 주요변인으로써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Lim[5], Kim[8]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의 학과만족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와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won과 Yeun[12]는 확고한 이념과 목표가 없는 간호활동은 참다운 간호상과 간호현상의 부재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므로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이 간호에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간호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11].

즉, 간호대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만족 저하는 향후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 형성을 방해하고 전문직 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16]. 따라서, 보다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사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하고 전문직 교육을 받는 시기인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학과 만족도와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학생들은 학과만족도에 따라 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임하는 태도에 차이를 보이며, 궁극적으로 간호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7].

이상에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 경험하게 되는 환자에 대한 책임감,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전문직관의 올바른 확립과 자아탄력성이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학과만족에 이들 변수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가 없어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신입생 때부터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4].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이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및 학과만족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학과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간호전문직관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 U 광역시 소재 4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 235명의 간호대학생에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본크기는 G 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수준 α 는 .05, 검정력은 .80, 효과크기는 .25(medium)로 선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200명이었고,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260명은 충분한 검정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1) 병원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간호대학생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형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자아탄력성 29개 문항, 간호전문직관 18개 문항, 학과만족 18개 문항, 일반적 특성 8개 문항으로 총 7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자아탄력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Klohnen[18]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Park[19]이 국문화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기준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진술 4문항과 부정적 진술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진술문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Park[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이었고, Kim[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2 이었다.

2.3.2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Kwon등[20]이 개발하여 Kim[21]이 연구에 적합하도록 요인 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수정, 축소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측정기준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0]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며, Jang[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16이었다.

2.3.3 학과만족도 측정도구

학과만족도 측정도구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23]를 Kim과 Ha[24]이 수정·보완한 총 27문항의 학과만족도 척도 중 학교만족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만족 문항은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Ha[24]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이었으며, Kim[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82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U광역시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IRB no: ch-201510-01)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간 수집하였

다. 사전에 해당 학교 화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받아 실습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인해 해를 입지 않음과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설문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동의서의 서명과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전체 26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설문지 중 248부를 회수하여 그 중 부적절한 답을 한 13부를 제외한 23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의 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학과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평균평점, 표준 편차 및 최대값과 최소값을 산출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간호전문직관, 학과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간호전문직관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6)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88.5%(208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종교유무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57.4%(135명), 없는 경우가 42.6%(100명)

로 종교 있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1세 이하가 59.6%(140명)로 가장 많았고 22~25세 이하 31.9%(75명) 순이었다. 지난 학기 학업성적은 평점3.0~3.9가 77.4%(182명), 평점2.9이하가 12.8%(3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로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가 41.7%(98명)로 가장 많았고 취업률 고려 33.6%(7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좋은 편56.2%(132명), 보통41.3%(97명) 순으로 교우관계에 어려움은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적응 잘함68.1%(160명), 매우 적응 잘함26.0%(61명)으로 대부분이 대처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왔다. 간호사에 대한 사회인지도는 높은 편47.7%(112명), 매우 높은 편20.0%(47명)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7(11.5)
	Female	208(88.5)
Age(years)	≤ 21	140(59.6)
	22~25	75(31.9)
	≥ 26	20(8.5)
Religion	yes	135(57.4)
	no	100(42.6)
Grade point average score	≤ 2.9	30(12.8)
	3.0~3.9	182(77.4)
	≥ 4.0	23(9.8)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according to Grade	15(6.4)
	Suitable to aptitude and interest	98(41.7)
	Getting a job easily, Economic safety	79(33.6)
	Recommendation	31(13.2)
	Others	12(5.1)
Relationship with friends	Satisfied	132(56.2)
	Moderate	97(41.3)
	Dissatisfied	6(2.6)
Cope with the situation	Highly good adaptation	61(26.0)
	Good adaptation	160(68.1)
	None adaptation	14(6.0)
Social awareness of the nurse	Highly high	47(20.0)
	High	112(47.7)
	Moderate	65(27.2)
	Low	11(4.7)

3.2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학과만족도 정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평균이 90.60±18.34 (도구범위: 29-129) 평균평점 3.12±.63 (척도범위: 1-5) 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 평균은 65.50±8.38(도구범위: 38-89) 평균평점 3.63±.46 (척도범위: 1-5) 중간 정도였다.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정도는 평균 67.74±9.67(도구범위: 24-90) 평균평점3.76±.28 (척도범위: 1-5) 중간 정도였다[Table 2].

Table 2. Ego-resiliency, Nursing Profession, Department Satisfaction (N=235)

Variables	Mean±SD	Min-Max	Average Mean±SD	Range
ego-resiliency	90.60±18.34	29-129	3.12±.63	1-5
nursing profession	65.50±8.38	38-89	3.63±.46	1-5
Department Satisfaction	67.74±9.67	24-90	3.76±.28	1-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학과 선택 동기($t=5.694, p<.001$), 교우관계 정도($t=11.16, p=.001$), 간호사 사회인지도($F=4.209,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결과 간호학과 선택 동기에서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온 군이, 취업률을 고려해서 선택한 군과 가족이나 선생님의 권유 선택한 군보다, 학과만족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우관계가 보통인 군과 어려운 정도를 느끼는 군보다, 교우관계가 좋은 편인 군이 학과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사회인지도가 높은 군이 매우 높은 군보다 학과만족도 정도가 높았다. 선택 동기에 따른 학과만족도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694, p<.001$) 간호학과 선택 동기에서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가족과 선생님의 권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증결과 교우관계에서 좋은 편이 낮은 편인 군보다 간호사에 대한 사회인지도가 매우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학과만족도 정도가 높았다[Table 3].

3.4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 및 학과만족도와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정도와 학과만족도 정도의 관계는 약한 정도의 순 상관관계($r=.136, p<.001$)

를 보였다. 즉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r=.450, p<.001$), 즉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의 정도가 높았다[Table 4].

Table 3. Departm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35)

Variables	Categories	Department Satisfaction			
		Mean±SD	t/F	p	Scheffe
Aender	Male	3.85±.44	.926	.356	
	Female	3.75±.54			
Age(years)	≤ 21	3.73±.53	1.176	.310	
	22~25	3.84±.58			
	≥ 26	3.73±.36			
Religion	yes	3.78±.56	.816	.415	
	no	3.73±.49			
Grade point average score	≤ 2.9	3.65±.41	2.816	.083**	
	3.0~3.9	3.76±.54			
	≥ 4.0	3.97±.63			
Motivation for admission	Grades in high school (a)	3.71±.58	5.694	.000***	b>c,d
	Suitable to aptitude and interest (b)	3.95±.54			
	Getting a job easily, Economic safety (c)	3.61±.47			
	Recommendation(d)	3.60±.52			
	Others(e)	3.68±.39			
Relationship with friends	Satisfied(a)	3.88±.51	11.160	.000***	a>b,c
	Moderate(b)	3.64±.47			
	Dissatisfied(c)	3.10±1.08			
Cope with the situation	Highly good adaptation	3.83±.50	.861	.424	-
	Good adaptation	3.75±.51			
	None adaptation	3.65±.89			
Social awareness of the nurse	Highly high(a)	3.96±.61	4.209	.006**	a<b
	High (b)	3.76±.53			
	Moderate (c)	3.68±.39			
	Low (d)	3.43±.80			

* $p<.05$, ** $p<.01$, ***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Ego-resiliency, Nursing Profession, Department Satisfaction (N=235)

Variables	Department Satisfaction	
	r	P
ego-resiliency	.136	<.001
nursing profession	.450	<.001

3.5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전 에 기본 가정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정선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 값(tolerance)과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과 잔차값(Durbin Wtson)을 산출하였다. 공차 한계값은 .725~.922에 걸쳐 있고, VIF 값은 1.000~1.121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Durbin Wason 검정결과 1.67 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합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의 적합도는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학과 만족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학과 선택 동기, 교우관계, 간호사인식을 각각 양분하여 더미 처리 한 변수와 간호전문직 및 자아탄력성 변인에 대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과만족도 에 대한 전체적 영향 요인은 25.3%였으며, 가장 높은 관 련요인은 간호전문직관으로 19.9%로 가장 설명력이 높 았다. 그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을 추가하였을 때 24.4%, 교우관계를 추가 하였을 때 25.3%의 설명력을 나타났 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은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Department Satisfaction (N=235)

Variable	B	SE	β	t	p	Adj. R ²
constant	33.681	4.50	.450	7.485	.000***	
Ego-resiliency	.117	.031	.220	3.791	.000***	.243
nursing profession	.560	.068	.484	8.354	.000***	.199
relationship with friends	2.337	1.163	.120	2.009	.046 **	.253
Adj. R ² =.253, F(p)=4.043(<.001)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이 학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 확인한 학과만족도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 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정도 는 평균이 90.60±18.34(도구범위: 29-129) 평균평점 3.12±.63 (척도범위: 1-5)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3년제 간호과 1~3학년, 4년제 간호학과 1~4학년 대상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8]의 연구에 서 3.38±.52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학년이나 학생들의 실습 유무에 따라 자아 탄력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아탄력성 은 자신이 처한 환경적 요구에 대해 심리적 균형을 유지 하고 향상시키도록 하는 역동적인 능력으로[18], Lim[5] 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자아 탄력성 개발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간호대학생들 의 자아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 평균은 65.50±8.38 (도구범위: 38-89) 평균평점 3.63±.46 (척도범위: 1-5) 중간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4년제 간호학과 1~4학년 대상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o등[10]의 3.52±.46보다 높게 나타났고,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3년제 간호과 1~3학년을 연구한 Jung등[25]의 3.76, 3년제 간호과1~3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Kwon와 Yeun[12]의 3.60 결과 와 비슷하고, 25개 간호대학의 간호대학생 1~4학년 대 상으로 연구한 Jang[22]의 연구결과 3.80 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에 따라, 실습유무에 따라 간호전문 직관의 형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 인 교육을 통해 형성되어 지속되어 진다는 것[22]으로 대상 학생들의 학년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학년별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 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년별로 간호전문직관을 유지하고 발전 할 수 있는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 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정도는 평균 67.74±9.67(도 구범위: 24-90) 평균평점3.76±.28 (척도범위: 1-5)로, 이 러한 결과는 3년제 간호과 1~3학년, 4년제 간호학과 1~4학년 대상의kim[8]의 연구에서는 3.64, 3년제 간호 과 1~3학년 대상의 Jung등[25]연구에서는 3.56±.50점으 로 높았고, 3년제 간호학과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26]의 연구에서는 3.79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 1~4

학년 대상의 Jang[22]의 연구에서는 3.89점으로 본 연구에서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이 실습전후에 변화하고 본 연구 대상자들이 실습중인 경우라 전공 만족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공만족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대학생들이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지므로[27]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학과만족을 높여 진로의식형성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교과과정 또는 전공 수업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학과 선택동기($t=5.694, p<.001$), 교우관계 정도($t=11.16, p=.001$), 간호사 사회인지도($F=4.209,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3,4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8]의 연구에서는 교우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나이, 학제에서 유의하게 나온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결과 간호학과 선택 동기에서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온 군이, 취업률을 고려해서 선택한 군과 가족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선택한 군보다, 학과만족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우관계가 보통인 군과 어려운 정도를 느끼는 군보다, 교우관계가 좋은 편인 군이 학과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사회인지도가 높은 군이 매우 높은 군보다 학과만족도 정도가 높았다. 선택 동기에 따른 학과만족도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694, p<.001$) 간호학과 선택 동기에서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가족과 선생님의 권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8]의 적성에 맞아서, 고교 성적을 고려해서 학과를 선택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의 의지로, 내재적 동기 부여가 있는 학생일수록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타인의 권유로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나 타의에 의한 선택으로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기초 이해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전공 탐색 프로그램이나 캠프를 1학년에 진행하여 전공 교과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정도와 학과만족도 정

도의 관계는 약한 정도의 순 상관관계($r=.136, p<.001$)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는 중간정도의 상관관계($r=.450, p<.001$), 즉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 1~4학년 대상 대상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ang[22]의 연구에서 $r=.47$ 의 결과와 유사 하였으나, 간호대학생 1~4학년 대상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o등[10]의 연구에서 $r=.659$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즐거움이 간호전문직관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2]와 일맥상통 하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직 교육을 통해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향상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22].

넷째 간호학생의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전체적 영향 요인은 25.3%였으며, 가장 높은 관련요인은 간호전문직관으로 19.9%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을 추가하였을 때 24.4%, 교우관계를 추가 하였을 때 25.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사가 갖고 있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관점으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간호전문직의 미래에 희망을 갖고 간호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긍지를 가질수록[28],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만족하는 정도인[23]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올바르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제 공시 학과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능력($r=.600,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접어드는 간호대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고학년이 되면 경험하게 될 임상실습 현장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바람직한 자아의 탄력성으로 대인관계증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높일수록[28]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로 보인다.

대학생활 안에서의 교우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영역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큰 의미를 가지며, 간호학과 1~4학년 학생 대상의 Kim[29]의 연구에서 교우관계와 대학생활 적응은($r=.455, p<.05$)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이며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8]의 연구결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간호전문직관을 학과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가 학과만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확인 되었으므로, 신입생 때부터 간호의 이념, 가치, 본질, 목적, 대상자 등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관을 결합시키는 진로교육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긍정적 자기인식을 돕는 교육과정과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과정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여 전공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이 추후 간호사로서의 전문직업인으로 역할 갈등이나 현실충격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중재프로그램 제공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학생들의 학과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연구의 제한점으로 대상자의 선정 시 한 개 도시의 소수 대학의 대학생들만을 추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거나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제언으로는 간호대학생만을 위한 전공만족도에 대한 측정도구가 없어서 변수의 개념이 학과만족 또는 전공만족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개념의 정의가 이분화 되어 간호학과 전공만족도 측정 도구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학년별 학과만족이나 전공만족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정규 및 비정규교과 과정을 개발해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H. Kim, J. E. Song, S. K. Lee, S. K. Heo, Y. H. Sung, J. E. Lee,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Clinical Nurses -A Preliminary Study for an Education Program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80-89,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80>
- [2] O. S. Lee, M. O. Gu, M. J. Kim,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6, pp. 3902-3910,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6.3902>
- [3] K. Y. Yang, J. R. Lee, B. N. Park,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junior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5-13,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05>
- [4]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5, pp. 2937-294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 [5] J. H. Lim,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Nursing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4, pp. 2273-3284, 2014.
- [6] E. Y. Yu, Y. J. Yang, "A Study on the Difference among College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nd the Influence on Career Str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12, pp. 557-568, 2013.
DOI: <http://dx.doi.org/10.14400/JDPM.2013.11.12.557>
- [7] J. J. Suk, J. M. Jo, Y. I. Young,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 27-36,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 [8] D. J. Kim,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3.
- [9] E. K. Mun,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Burnout of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2.
- [10] J. E. Ko, M. H. Kim, E. J. Kim, H. J. Kim, J. E. Eom, H. A. Lee, N. R. Jang, D. E. Jang,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Vol.45, pp. 29-44, 2010.
- [11] Y. S. Ham, H. S. Kim,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 Nursing Vol.19, No.3, pp. 363-373, 2011.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3.363>
- [12]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3, No.3, pp. 285-292, 2007.
- [13]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5, pp. 2178-21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14] J. H. Block,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13, pp. 39-101, 1980.
- [15] O. H. Lee,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1, pp. 29-57, 2012.
- [16] H. M. Kwon, "The Subjective Factors of Happiness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2015.
- [17] D. J. Oh, C. J. Choi, B. E. Kwon, Y. H. Park,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 64-72, 2005.
- [18]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pp. 1067-1097,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5.1067>
- [19] H. J. Park, "Perceived Stress, Coping Process and Depression to ego-resilience". master's thesis, Korean University, 1997.
- [20] Y. M. Kwon, E. J. Yeun O. H. A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nursing, Vol.15, No.3, pp. 1091-1100, 2005.
- [21] M. H.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View of Nursing as Professionalism".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08.
- [22] T. J. Jang.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5.
- [23] L. A. Braskamp, S. L. Wise, D. D. Hengstler,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1, pp. 494-498, 1979.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71.4.494>
- [24]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pp. 7-20, 2000.
- [25]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 27-36,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 [26]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 [27] D. Barron, E. West,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12, No.1, pp. 46-51, 2007.
DOI: <http://dx.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 [28] S. A. Ji, H. J. Mun, S. S. Han, M. S. Kim, S. B. Kwon, "Nursing Management 1", Sumunsa: Seoul, pp.24-54, 2000.
- [29] J. 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2015.

조 정 애(Jung-Ae Cho)

[정회원]



- 2012년 8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의료경영

김 정 선(Jeong-Seon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신보건간호학석사)
- 2014년 1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수료)
- 2014년 9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정신건강, 사회교육